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 소식

College of Social Sciences Newsletter

vol.09 | 두껍아 두껍아 헌집줄게, 새집다오.

01 학사 일정 02 학장 인사말·예원정 산책 03 사회대 소식 04 사회대 소식·학과 소식 08 신간소개

발행일 2022년 9월 15일 발행처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발행인 이재식 편집인 이원익
전화 051. 510. 1554 팩스 051. 581. 1456 홈페이지 socio.pusan.ac.kr 디자인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아쉬운 이별과 새로운 만남



2022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송정숙(문헌정보), 임영호, 채백, 박홍원(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교수님이 사회대 구성원들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뒤로 하고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맞이하셨다. 그리고 2022년 2학기에는 이신혜, 김범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 이상백(문헌정보), 전미선(행정) 네 분의 교수님이 새롭게 부임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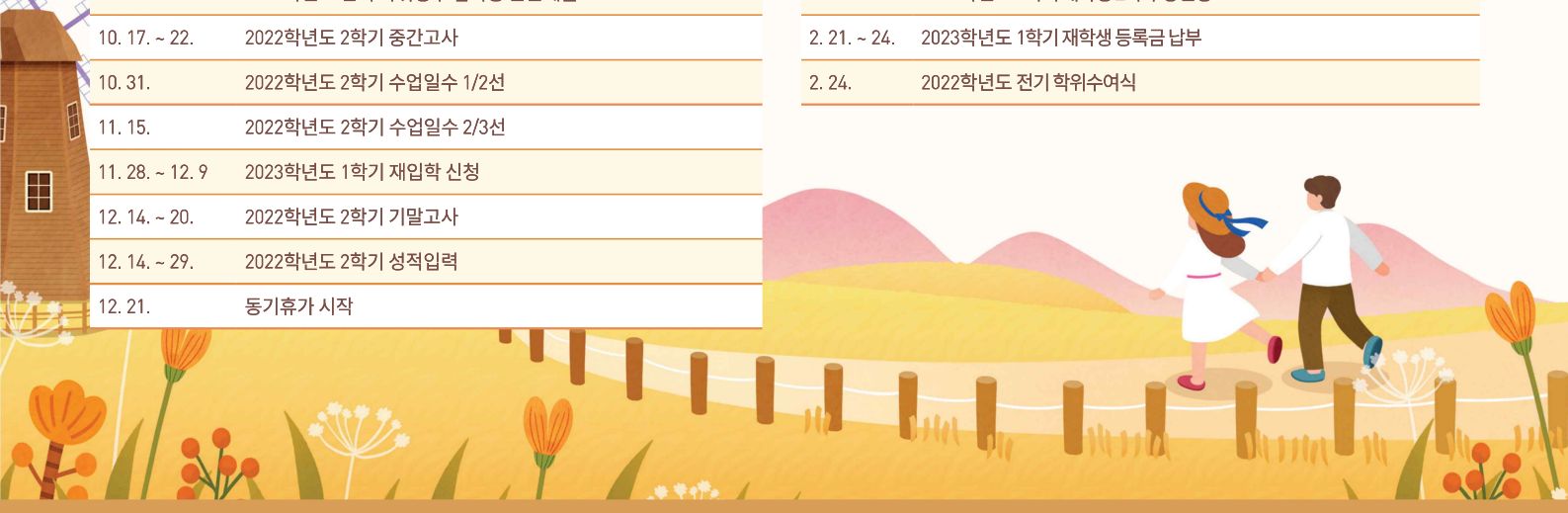
학사일정

2022년

9. 1.	2022학년도 2학기 개강
9. 1. ~ 7.	2022학년도 2학기 1차 수강정정
9. 16. ~ 19.	2022학년도 2학기 2차(최종) 수강정정
9. 19. ~ 23.	학위논문제출자격 종합시험
10. 4. ~ 11.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취소(W)
10. 11.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1/3선
10. 13.	2022학년도 전기 학위청구 심사용 논문제출
10. 17. ~ 22.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10. 31.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1/2선
11. 15.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2/3선
11. 28. ~ 12. 9.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12. 14. ~ 20.	202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12. 14. ~ 29.	2022학년도 2학기 성적입력
12. 21.	동기휴가 시작

2023년

1. 6.	2022학년도 전기 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및 최종논문 제출
1. 9. ~ 20.	2023학년도 1학기 국·영문 교수계획표 입력
2. 1. ~ 2. 7.	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기간
2. 2. ~ 3.	2023학년도 1학기 희망과목담기
2. 8. ~ 10.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1차 수강신청
2. 13. ~ 14.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 수강신청
2. 15. ~ 17.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2차 수강신청
2. 21. ~ 24.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2. 24.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이 물러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만 어느덧 가을 분위기가 감질나게 살짝 느껴지는 어느 하루의 이른 아침입니다. 때가 되면 당연하듯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가 유난히 반가운 것은 힘들었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었지요?

사회과학대학 구성원들의 공부와 교류의 터전인 우리 사회관이 앞으로 큰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관의 열악한 시설환경 및 절대적 공간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관 개축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교육부로부터 사회관 개축사업 예산으로 406억 원이 책정되었고, 8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차년도 예산으로 신청 예산에 대해 삭감 없이 전액 승인되었습니다. 금년 12월에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 및 최종 확정 절차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면 2023년 초부터 사회관 개축을 위한 설계가 1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이후 2024년 초에 공사가 시작되고 완공까지는 대략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관 개축사업이 현 단계까지 진척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관의 열악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부산대학교의 여러 시설사업 중에서 사회관 개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고려해 주신 차장인 총장님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총장님, 기획처장님, 전임 학장님들과 학과장님들을 비롯한 사회과학대학 전체 교수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행정실 선생님들의 일사분란하면서도 효과성있는 업무수행이 사회대 구성원의 오랜 숙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현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회관 건물의 설계 과정 초기 단계부터 교수님과 학생을 포함한 사회과학대학 모든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은 물론 완공되었을 때 외형과 시설의 제반 측면에서 장전 캠퍼스를 대표할 수 있는 건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학기에 문헌정보학과 송정숙 교수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홍원, 임영호, 채백 교수님께서 퇴임하셨습니다. 퇴임 교수님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연구, 교육, 봉사에 대한 열정과 노력, 그리고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면서 남기신 발자취는 사회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훌륭한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대학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신혜, 김범수 교수님, 문헌정보학과 이상백 교수님, 그리고 행정학과 전미선 교수님 등 전도유망한 네 분의 신임 교수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교수님들께서 우리 대학의 위상에 걸맞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변화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변화해야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생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변화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 나아가 변화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들 사이의 강한 유대와 친화는 다른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갖고 계시는 강한 유대와 친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우리 대학의 최대 장점이고 변화해서는 안 될 전통이자 문화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이 경험할 많은 현안을 무난하고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우리 대학 구성원이 갖고 계신 이러한 자산이 큰 힘을 발휘하리라 믿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이재식 학장

신임교수

많은 것이 새롭고 낯설게 느껴졌던 부산대학교에서의 첫 학기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잘하고 싶은 의욕이 가득했던 저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선에서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디면서 어떻게 해야 부산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나아가 우리가 사는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일상의 변화와 적응을 겪으며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 길을 먼저 묵묵히 가고 계신 여러 교수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 길을 가는 기쁨에 대해 많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사회대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학과
윤미영 교수



안녕하세요. 사회학과와 주윤정입니다. 저는 신임교원 연구 발표회에서 플라스틱 화분에서 토분으로 옮겨다니다 비로소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과학대학의 여러 선생님들께서 따뜻하게 환영해주시고 살피주셔서 한 학기를 잘 보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부산대 교정의 대나무숲, 코스모스 꽃밭, 미리내 계곡과 툴립 나무를 지나 연구실에 오며 생명의 활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 학기에 만난 부산대의 학생들은 열정적이고 성실했습니다. 제 수업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강의를 한 바 있는데,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부산대 내의 이동권, 접근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학교 내 순환버스에 저상버스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무궁한 잠재성을 갖고 있기에, 세상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접착면이 만들어진다면 이를 배움으로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부산대에서 뿌리를 잘 내려서, 학생들이 세상과 넓고 깊게 만날 수 있도록 이끌고, 동지를 틀 수 있는 튼튼한 나무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환대 감사드립니다.

사회학과
주윤정 교수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께 감사패 전달

한국불교 태고종 천불정사 주지인 고담 스님은 16년간 한결같이 부산대 고시생 지원을 위해 3억 2천만원을 기부해 오고 있으며, 이를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 2022년 7월 25일 발전기금 지원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를 사회과학대학에서 개최하였다. 사회대 신목정과 고담정은 16년간 47명의 고시 합격생을 배출하였다.



사회대 전체 교수회의 개최

| 일시 2022.6.16.(목) 16:30
| 장소 사회관 208호
| 참석 33명
| 내용 사회관 개축 관련 추진
 경과보고, 정년퇴임 기념식



신임교수 발표회 개최

| 일시 2022.4.20.(수) 12:10
| 장소 사회관 208호 대면 및 Zoom 화상 병행
| 참석 38명
| 발표자

- 윤미영(사회복지학과 조교수)_아동학대가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주윤정(사회학과 조교수)_차별과 포용의 사회학



박사학위수여자 명단

- 이인영 [심리학과/정영숙]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심리적 통제 및
 청년 자녀의 행복감과의 관계
- 김시내 [문헌정보학과/송정숙]
 고려 말·조선시대『古文眞寶』의 수용과 확산에 관한 연구
- 강승화 [신문방송학과/채백]
 미디어와 거리두기 참여자의 유형화 연구

퇴임교수



문헌정보학과
송정숙 교수

송정숙 교수는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고전문학을 전공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서지학 전공으로 문헌정보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는 1987년 4월에 부임하여 약 36년간 재직하면서 학과 발전과 인재 양성에 헌신하였다. 학내에서는 사회과학대학장(2011-2013)을 비롯하여 교수회 부회장, 여교수회 회장, 여성연구소장, 부산대도서관 부관장 등을 역임하였고,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양성평등추진위원회,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등 학내 주요 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교외에서는 한국기록관리학회장(2013-2016),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회장(2018-2019), 부산·울산·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2008-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삼국유사 목판사업 자문위원(2015-2016) 등으로 활동하면서 문헌정보학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다. 탁월한 연구성과와 교육경험을 인정받아 2013년 「퇴계학부산연구원 학술상」과 2021년 「부산대학교 교육자상」을 수상하였으며, 연구책임자로 활동했던 한국연구재단의 SSK 사업의 주요 성과물인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로 「다음세대재단 디지털 유상 어워드-공익성 부문」(2016)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저술 활동으로 「서지학개론」(한울아카데미), 「기록으로 보는 생활사」(국가기록원), 「기록관리론」(아세아문화사), 「한국의 문화유산」(부산대출판부) 등의 공동저서가 있고, 서지학, 기록관리학, 기타 문헌정보학 관련 학술논문 60여 편을 발표하였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임영호 교수

임영호 교수는 1991년 3월 부산대학교에 부임한 이후 31년여간 본교에서 연구와 교육에 성실히 임하고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통해 학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갯 창설된 신생 학과인 신문학과에 부임해 신문방송학과를 거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로 개편할 때까지 학과의 기틀을 세우는 데 전력하였다. 교내에서는 사회과학연구원장, 언론정보연구소 소장, 부대신문 논설위원, 강의평가위원회, 사회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인문사회연구기금 운영위원, 국제화위원회, 도서관 운영위원, 윤리연구학술위원 등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다. 연구자로서 재직 기간 동안 <학문의 장, 지식의 제도화, 2019> 등의 저술과 <장르와 내러티브, 2020> 등 번역서를 비롯해 50여 권의 저술/번역서/보고서를 출간하였고, 70여 편의 학술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꾸준히 발표하였다.

퇴임교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채백 교수

채백 교수는 1992년 3월 부산대학교에 부임한 이후 30년여간 본교에서 강의와 학생 지도에 성실히 임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하였다. 언론사를 중심으로 출판잡지와 잡지 실습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과목을 맡으면서 학생 지도에 헌신해 왔다. 교내에서는 1996년부터 신문방송학과장을 맡아 학과 발전에 헌신하였으며 1995년부터는 부산대학교 교수회의 홍보 간사로서 소식지를 편집하고, 교수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등 학교 발전에 공헌하였다. 2001년부터 2년간 사회과학대학 부학장으로서 교수들의 화합을 도모하며 단과대학 발전에 기여하였고 2003년부터는 출판부장을 맡아서 출판문화 활성화에 공헌하였다. 2003년부터 4년간은 언론정보연구소장을 맡아서 여러 건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박홍원 교수

박홍원 교수는 2002년 9월 부산대학교에 부임한 이후 20년간 본교에서 연구와 교육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통해 학교 발전에 기여하였다. 교내에서는 입학전형위원, 입시공정관리위원장, 그리고 비대위 집행위원장을 맡아 총장 직선제를 복원하는 데 힘썼다. 2017년 3월에 부산대학교 교수회장을 역임하였고, 2018년에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협의회에서 제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립대학의 제도개선과 국립대학 교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썼다. 2020년 5월부터 부산대학교 교육부총장과 대학원장을 맡아 부산대학교 발전에 기여하였다. 학술 활동으로 한국언론학회 이사와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장을 역임하였고, 국내에서 blind peer review 제도를 처음 도입한 계간 학술지 <언론과 사회>의 편집위원, 편집장, 편집위원장을 거쳐 현재는 동 학술지의 발간을 책임지고 있는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의 이사직을 역임하고 있다.

사회대 보직자 명단

이재식 학장	사회과학대	2021.9.1.~
이원익 부학장	사회과학대	2021.9.1.~
강재호 학과장	행정학과	2018.7.31 ~
이철순 학과장	정치외교학과	2021.9.1.~
남재현 학과장	사회복지학과	2022.7.1.~
신원철 학과장	사회학과	2022.3.1.~
주성준 학과장	심리학과	2022.8.1~
노지현 학과장	문헌정보학과	2022.3.1.~
김효정 학과장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020.9.1 ~
이재식 원장	행정대학원	2021.9.1.~
정혜진 부원장	행정대학원	2021.9.1.~
이수상 원장	사회과학연구원	2021.3.1.~

사회대 평의회

노지현 부회장	사회과학대	2021.3.11.~2023.2.28.
서재권 평의원	사회과학대	2022.3.29 ~2023.2.28.

본부 보직교수 명단

장덕현 기획처장	2022.3.1.~
황성욱 부산대언론사주간	2년(2021.9.1.~)
이용재 도서관장, 기록관장, 외국학술지원센터장	2년(2022.9.1.~2024.8.31.)
김비아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2년(2021.1.21.~2023.1.20.)
김진현 연구부처장	2021.7.1.~2022.7.1.
심은정 취업전략부처장	2022.3.4.~
이동훈 홍보실장	2022.7.25.~

장기파견 및 연구년

김영 사회학과	교수	2022.3.1.~2023.2.28.
차창훈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2.3.1.~2023.2.28.
박재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2022.3.1.~2023.2.28.
유영미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2022.7.1.~2023.6.30.
설문원 문헌정보학과	교수	2022.9.1.~2023.8.31.

휴직

설선헌 심리학과	부교수	2022.9.1.~ 2022.12.31.
----------	-----	------------------------

행정학과



◀ 부산시립도서관 인턴십 실시

행정학과는 2022년 3월부터 6월말까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에 이준혁(행정17) 학생을 파견하여 16주 동안 인턴십을 실시하였다. 이번 인턴십을 통하여 현장을 체험하고 이를 통하여 현장 감각 및 적응 능력 향상, 진로 선택의 동기 부여, 취업경쟁력 제고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부산도시공사 현장실습 실시 ▶

행정학과에서는 지난해부터 3년동안 매년 이어서 2022년 6월말부터 8월말까지 부산도시공사에 김정욱(행정18) 학생을 파견하여 8주 동안 현장실습을 실시하였다. 이번 인턴십을 통하여 공단의 현장을 체험하고 이를 통하여 현장 감각 및 적응 능력 향상, 진로 선택의 동기 부여, 취업 경쟁력 제고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회대 행정학과는 부산도시공사와 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매학기 1~2명의 인턴십을 선발하여 공단에 인턴교육을 위탁하고 있다.



정치외교학과

2022학년도 정치외교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정치외교학과는 3월 3일(목) 성학관102호에서 2022학번 새내기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2년만에 대면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교수님 소개 및 학생회 소개, 그리고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과 해외 교류를 다녀온 학생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끝으로 교수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과 교수가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2022학년도 1학기 졸업생 초청 취업특강

정치외교학과에서는 5월 26일(목)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1학기 졸업생 초청 취업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취업특강은 11학번 정선화 학생(우아한형제들), 15학번 주홍희 학생(한국주택금융공사)을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매년 개최하는 졸업생 취업특강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고취에 도움을 주는 좋은 기회이다.

정치외교학과 국회 견학 ▶

정치외교학과에서는 8월 25일(목) 국회 견학을 진행하였다. 학과장인 이철순 교수님의 인솔 아래 학부생 20여명이 서울 소재의 국회박물관과 본회의장을 관람하고, 입법조사처에서 특강을 들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국립대학혁신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견학은 학생들의 견문을 넓혀 전공 역량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었다.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과 2022학년도 서원나눔재단 예비사회복지사 장학금수여식**
서원나눔재단 예비사회복지사 장학금전달식이 22년 6월 23일, 부산대학교 사회관 113호에서 진행되었다. 서원나눔재단은 부산광역시사회 공헌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자원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의 원활한 학업환경을 조성하고 예비사회복지사로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2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올해 사회복지학과에서는 김보석(16학번), 남승현(18학번), 안담린(20학번), 전유정(21학번)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장학생들의 훌륭한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성장을 기대한다.

사회복지학과 2022학년도 상반기 취업콘서트 개최 ▶

사회복지학과는 22년 5월 27일 졸업생을 초청하여 2022학년도 상반기 취업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취업특강에 참여한 졸업생은 16학번 이보영(서울관악고용센터)과 07학번 김민수(부산대학교)로 이날 취업콘서트는 학생들이 궁금해 했던 직군과 관련된 졸업생을 초청하여 직업 소개와 취업 노하우 등을 재학생들에게 공유하고자 개최되었다. 취업콘서트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의 많은 질문이 이어져 취업 및 진학에 대한 재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취업특강이 학생들의 취업역량 향상에 기여했기를 기대한다.



사회학과



◀ 2022학년도 사회학과 제1차 콜로키움

2022년 5월 20일 제1차 사회학과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콜로키움은 숙명여자대학교 홍성수 교수님의 '차별금지법과 정책'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현재의 차별 사례들을 통해 차별문제에 대한 여러 쟁점, 혐오와 차별에 관한 법과 제도, 차별 문제의 특수성과 차별금지법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및 후쿠오카 대학 온라인 교류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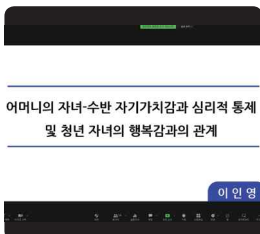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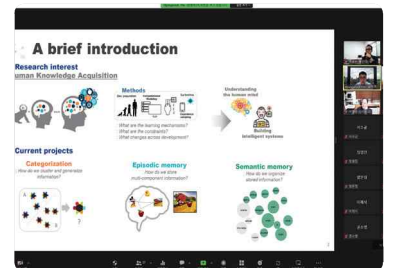
2022년 8월 4일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및 후쿠오카 대학의 온라인 교류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교류회에서 사회학과 학생들은 '부산의 음식탐방', '우리사회의 거울: 웹툰', '오타쿠와 팬덤: 사회적 편견'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여 발표하였고, 일본 학생들은 '일본과 한국의 드라마 비교', '일본의 애니메이션', '일본의 게임문화', '일본의 여성아이돌 오타쿠', '일본의 특촬물에 대하여'라는 다양한 주제로 발표하며 양국의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가 끝난 후 학생들은 채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질의응답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도 학술교류회가 꾸준히 시행될 필요성을 주장하며 온라인 교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심리학과

심리학과 콜로키움 개최 ▶

대학 구성원들의 학문적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2022학년도 1학기 심리학과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콜로키움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수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Zoom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2022년 6월 17일(금)에 한양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임형욱 교수를 모시고 'The developmental mechanisms of forming complex binding structures in episodic memory'라는 연구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여 대학원생들이 최신 연구를 접하고 활발한 학술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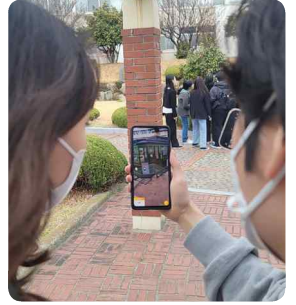
◀ 심리학과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생 논문발표회

2022학년도 1학기 심리학과 대학원생 논문발표회가 2022년 8월 19일(금)에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다. 심리학과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학년도 1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통과한 박사 및 석사 대학원생들이 자기소개와 함께 향후 진로계획과 학위를 마치는 소감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달심리, 상담심리, 사회신경과학, 임상심리, 계량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심리학 연구들을 발표하였으며, 발표 후 참석자들 간에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리학 연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새로운 시각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신입생 환영회 AR 게임 챌린지 ▶

문헌정보학과는 2022년 3월 31일(목) 사회관 일대 및 성학관 102호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1부 행사는 신입생들이 선배와 한 팀을 구성하여 사회관 및 도서관 일대에서 휴대전화 GPS 기능을 활용하여 함께 문제를 푸는 <AR(증강현실) 게임 챌린지>로 구성되었다. 게임 챌린지는 학과 및 학교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교수님 및 학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과에서 기획하였다. 2부 환영식에서는 새내기들이 각자 촬영해 온 자기소개 동영상을 보며 첫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새내기들은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교수님 및 재학생으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으며, 코로나-19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동문들은 영상으로 신입생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 문헌정보학과 사제동행 걷기대회

문헌정보학과는 스승의 날을 맞아 5월 13일(금) 「사제동행 걷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송정역에서 출발하여 청사포, 미포,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걸으면서 코로나-19로 잔뜩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파란색’으로 드레스코드로 맞춘 교수진, 학부생, 대학원생 등 약 90명이 참여하였다. 사제동행 걷기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교수님과 강의실에서 못다 한 이야기도 나누고 선후배 간에 좋은 추억도 쌓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걷기대회 후에 이어진 만찬장에서는 베스트 포토상과 베스트 드레서팀상을 시상하여 재미를 더 하였다.

문헌정보학과 송정숙교수님 정년퇴임행사 ▶

2022년 8월 19일(금) 농심호텔에서 문헌정보학과 송정숙교수님 정년퇴임 기념행사가 열렸다. 1부(16:00-18:00)는 “한국 서지학의 기록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학술세미나는 송정숙 교수님이 좌장을 맡았고, 국내외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 총 12명(발표자 3명, 토론자 9명)이 참여하였다. 2부 만찬식에서는 문헌정보학과 교수진, 재학생 및 동문 등 약 100명이 참석하여 송정숙교수님의 35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청년세대의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언론정보연구센터와 한국언론학회 조직커뮤니케이션 연구회 공동 주최로 ‘청년세대의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4월 29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산대 최창식 박사, 김태완 박사, 김상연 광운대 교수가 ‘청년 갈등의 유형과 현황’, 부산대 민희 교수가 ‘다른 마음: 청년세대와 공정’, 부산대 김수미 박사, 최창식 박사, 황성욱 교수가 ‘기업조직 내 세대 간 소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성욱 교수는 “오랜 기간 준비하고 고민했던 연구를 발표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혁신적 연구 시리즈를 통해 구체적인 사회적 솔루션을 보여주고, 소통 접점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부산대학교 언론사 업무협약 체결

부산대학교 언론사와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학 언론 활성화와 위한 상호 시설 이용 및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상호 간 교육 지원 협력, 콘텐츠 제작을 위한 상호 시설 및 장비 공유,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상호 정보 교류 및 공유, 기타 대학 언론 발전과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력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하였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임영호, 채백, 박홍원 교수님 정년퇴임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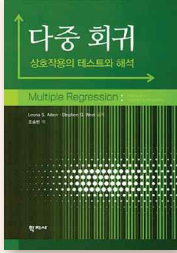
2022년 8월 25일(목)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임영호, 채백, 박홍원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맞아 작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30여 년간 학과 발전과 제자 양성, 학술 분야 발전에 기여하신 교수님들의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축하드리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는 교수님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SPSS와 jamovi를 이용한 자료분석론 김진현 저 | 공동체 | 2022

이 책은 사회과학연구 방법론 가운데 양적연구방법론의 개념 및 목적 그리고 다양한 분석방법에 대한 설명과 실습과정을 담고 있다. 사회과학연구 방법론의 철학적 배경이 될 수 있는 패러다임과 이론을 소개하고 연구에의 적용과정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양적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도 책의 앞부분에 소개하였다. 또한 각 챕터별로 동일한 실습자료를 활용하여 SPSS와 jamovi 프로그램을 실습함으로써 SPSS와 jamovi 프로그램을 동시에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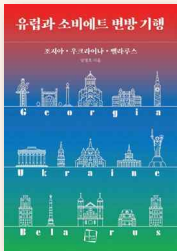
다중 회귀: 상호작용의 테스트와 해석 Leona S. Aiken 저 | 조승빈 역 | 학지사 | 2022

다중회귀 모형은 이론의 정립과 기제의 확인이 중요한 사회과학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통계모형이다. 특히 상호작용의 적용과 해석은 흔하게 접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이해와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Aiken과 West의 이 책은 다중회귀에서 특히 상호작용에 대해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룬다. 내용의 유용함과 깊이로 인해 이 책은 출판된 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통계수업의 교재로 쓰이고 있으며 인용 수는 52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본 역서를 통해 회귀분석의 명저에 대해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더욱 쉽게 접근하고 연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왜 다시 미디어 정치경제학인가 임영호 저 | 컬처북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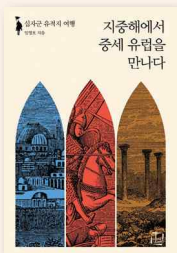
한국 사회의 의제를 주도하던 언론사의 위상은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 ‘기레기’라는 단어가 일상어처럼 통용되고 메이저 언론사까지 ‘어뷰징’이나 ‘낙시성’ 기사로 조롱거리가 된 현실은 플랫폼이 주도하는 미디어 지형에서 클릭 수에 목을 매는 언론의 현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위축된 언론만큼이나 미디어 정치경제학도 예전 같지 않다. 미디어 정치경제학이 추구하던 문제의식이 그냥 시대정신처럼 수용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학문의 장에서 치열한 지적 투쟁을 통해서 존재 의의를 증명해야 한다.



유럽과 소비에트 변방 기행 임영호 저 | 컬처북 | 2022

조지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를 가다.

오랜 기간 강대국 사이에서 억압받아 온 조지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역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목격한 아름다움을 안타까움과 애잔함으로 담담하게 기록하였다.



지중해에서 중세 유럽을 만나다 임영호 저 | 컬처북 | 2022

유럽을 이해하는 핵심 ‘종교와 전쟁’ 십자군 유적지를 가다.

역사적 유적지는 희미하게 남은 과거의 흔적과 기억만으로도 감동을 준다. 더불어 유적에 남은 사연을 잘 알수록 상상력도 경험의 깊이도 배가된다. 여행은 특정 장소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느낌, 사전 지식, 그리고 약간의 우연이 함께 어우러져 빛낸 독특한 이야기다. 이 책은 단지 과거에 대한 호기심 어린 구경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현재 세계에 대해 성찰한 기록이다. 여행지에 얽힌 이야기와 함께 저자의 시선으로 포착한 사진은 우리를 십자군 유적지로 안내한다.



민족지의 신화 채백 저 | 컬처북 | 2022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형되었나

‘민족지 신화’는 일제 강점기에 존재했던 두 신문의 과거사를 ‘민족지’라는 개념으로 평가하는 인식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제 강점기의 두 신문이 식민 지배의 가혹한 탄압에 저항하며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며 투쟁한 역사라고 평가하는 인식이다. 해방 이후 반민특위가 해산된 직후부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스스로 민족지 신화를 만들어 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정간 및 폐간당한 역사를 들어 저항하다 탄압을 받은 면으로 부각시켜 스스로를 민족 대표 신문으로 명명해 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두 신문은 더 이상 민족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책은 창간 100주년이 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역사를 비롯해, 광복 이후에 두 신문의 역사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 온 과정을 분석한다. 일제 강점기 민간지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역사적 평가의 변천 과정은 거의 연구되지 못했다. 친일 청산 문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오늘날 민족지 신화가 생성되고 굴절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이 책은 이론적 및 실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